

# 고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유치 총력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내년부터 4년동안 총사업비 70억원 투입 농촌 유·무형 자원·민간조직 활용 특화산업 육성·일자리 발굴

고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인 '2020년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행정력을 결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촌에 구축된 유·무형의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자립성장의

기반을 찾아내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4년 동안 총 사업비 7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이 투입된다.

그간 농촌개발은 비슷한 유형의 토목건축사업에 치중되면서 지역의 다양한 민간주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고창군은 다양한 민간주체(액션그룹)와 지역 핵심리더(코디네이터)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 발굴을 핵심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주민설명회, 간담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업유도 준비에 노력해 왔다.

특히 ▲농업경쟁력강화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유 공간 구축 ▲고창군 식품산업 명품브랜드화라는 3가지 목표로 설정

했다.

여기에 '농식품 융복합 신산업화 플랫폼(식품 가공센터 등) 구축' 등 세부 사업을 발굴하고, 창업 생태계 구축 계획 등도 수립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생명식품 수도 고창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다양한 분야와 계층을 연계한 통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최대한의 상승 효과를 얻어 내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정읍문학 제19집' 발간 동학혁명 기획물 등 실어

정읍문학회가 회원들의 작품을 엮어 '정읍문학 제19집' <사진>을 발간했다.

이번 문집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5월 15일(황도현 전승일)로 제정한 것에 발맞춰 표지화를 김용원 작가의 작품 '전봉준은 왜'로 했으며 조광환 동학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교훈'을 기획으로 실었다.

또 제7회 정읍사문학상 수상자인 이은희 시인의 시 '백운암, 석불입상에 기대어'와 정만진 작가의 수필 '이순신과 정읍사'와 심사평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전병운, 김영일 시인의 작품과 허점근 한시 작가의 작품을 초대사로 실었으며 고희은 아나지만 정읍에서 여생을 즐기고 있는 원로 송영택 시인과의 인터뷰도 다뤘다.

김철모 정읍문학회 회장은 "이번 문집은 회원들의 시, 소설, 수필을 망라해 소개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문호를 활짝 개방해 젊고 유능한 신인회원들의 좋은 글들이 많이 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섭(오른쪽 두번째) 정읍시장이 제3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을 찾아 공장 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정읍시 제공>

## 정읍에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들어선다

### 국비 28억원 투입 북카페·다목적홀 등 복지·편의시설 구축

정읍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2019년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제3 일반산업단지' 사업은 국비 28억원, 도비 3억6000만원 등을 지원받아 문화와 복지, 편의 기능이 접목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 문화와 복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근로자와 인근 지역주민들의 복지

환경 개선과 청년층 유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시 소유의 유휴지를 활용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상 2층(연면적 1710㎡) 규모의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한 편의점과 북카페, 생활체육 공간, 다목적홀, 복합문화공간, 옥외쉼터 등을 중점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복합문화센터 역할에 그치지 않고 기업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는 도록 기업

지원시설 구축에 대한 방안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전북도와 정읍시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한 끝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입주기업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해 정읍시 문화·복지의 새로운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태조사, 3차 발표심사를 통해 정읍시를 포함 전국 2개 산업단지를 최종 확정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익산시, '세외수입고지서 모바일 앱 전자송달' 서비스

익산시가 모바일 앱을 통해 세외수입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외수입고지서 모바일 앱 전자송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간편결제 앱과 은행 앱으

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1인·맞벌이가구 증가 등으로 우편 수신 불편, 고지서 분실, 개인정보 노출 등 현행 고지서 우편송달의 한계점 보완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운영하게 됐다.

신청대상은 개인납부자다.

신청과목은 국유재산임대료 2종, 공유재산 임대료 4종, 도로사용료 1종, 하천사용료 2종, 기타사용료 2종, 과태료 20종 등 총 31종이다. 납부자가 주로 이용하는 간편결제 앱 또는 금융 앱 전자고지함에 본인인 직접 신청·해지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신청 다음 달부터 바로 고

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단, 기존의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세외수입 전자송달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익산시는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 '군산사랑상품권' 을 4000억원 완판 눈앞

### 모바일 판매도 200억원 육박...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군산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사진)이 을 한해 발행액인 4000억원의 완전판매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발행한 3800억원의 총이유 군산사랑상품권이 최근 판매 완료됐다.

9월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도 200억원 가운데 10억여원만 남은 상태다. 이 추세라면 내달 초를 전후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에도 4개월 만에 910억원을 모두 팔았다.

군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연말까지 모바일 상품권만이라도 추가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군산사랑상품권이 인기를 끄는 것은 할인율이 10%로 높은 데다 가맹점이 8500여곳이나 돼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

##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본격화 될듯

### 기재부 평가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원안대로 의결

새만금 국제공항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원안대로 의결돼 공항 건설이 본격화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해 원안 의결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사업 시행을 전제로 한 사전타당성 용역의 검증 단계를 의미한다.

도는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비 40억원을 확보했다.

공항 후보지는 현재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km 떨어진 위치다.

총사업비는 7800억원으로 공항은 2.5km 길이의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갖춘다. 전체면적은

205만6000㎡에 달한다.

국토부는 2021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착공해 2028년 준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북도는 조기 완공을 위해 공사수행방식 결정 시 패스트트랙(탄기 등)을 적용해 개항 시기를 2년가량 앞당길 계획이다.

항공 수요는 2030년 74만882명, 2055년 84만4203명으로 예측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내부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고 새만금을 전북 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움시킬 것"이라며 "새로운 국제항공 수요에 대비해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순창군, 농촌마을 평범한 이야기 등 영상 수집 기록

순창군이 농촌 마을의 평범한 이야기,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기억, 마을 일상을 주민의 눈으로 수집하고 기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 마을의 과소화, 소멸, 노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마을의 소중한 삶의 기록이 소멸하는 사태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마을을 영상으로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다.

군은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지역역량강화로 마을 동영상 제작과 함께 농촌 마을 역사자료 구축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에 대한 공고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했다. 순창군 11개 읍면에서 농촌 마을 역

사자료 구축(20개 마을) 및 마을 영상 제작(10개 마을)을 선정하고 12월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순창군 마을의 역사와 주민 생활상 등 생생한 기록 및 자료 수집으로 후손들에게 마을의 역사를 알려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민들이 함께 만든 마을 동영상 및 마을 홍보영상 제작발표회도 14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내용을 보완해 내년에는 순창군 전체 마을로 확대해 생생한 마을 역사자료(동영상)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